

10/25

2020

은혜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SPIRITUAL WARFARE

긴장을 풀지 않고 승리하는 삶

말씀 본문 : [느 4:7-23]

1부 중보기도 : 선교팀 (7:30am~8:30am)

2부 중보기도: 마리아 권사회 (9:20am~10:20am)

3부 중보기도: 중보기도팀 (11:30am~13:00pm)

4부 중보기도: 청년부팀 (2:00pm~3:30pm)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숫군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흠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 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상거가 먼즉 너희가 무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 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찌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좇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으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 주일예배를 위한 기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 1)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날, 하늘 나라의 참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가득 채워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 2) 주 앞에 나아온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강림의 은혜가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모든 영적 침체에서 회복과 치유와 자유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 3) 긍휼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진리가 죄로 굳어진 심령을 회복케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통회 자복하는 심령마다 새 마음과 새영을 부어 주옵소서.
- 4) 예배 가운데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 안에서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 5)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갈급한 심령들이 복음을 듣고 주를 영접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 6) 모든 중보자들을 정결케 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예배마다 성령의 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 부: 천상육목사님, 2 & 3 부: 김대규목사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 95:1]

- 1) 주님의 보좌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 2) 주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며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 3) 찬양팀과 율동팀을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찬양과 율동이 되게 하옵소서.
- 4) 찬양하는 심령마다 모든 결박을 풀어 주옵시고, 참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 5)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온전히 갖춰지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케니박목사님, 전성호목사님, 김동철목사님)

- 사회 담당 목회자를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사도신경 암송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확고한 신앙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3. 대표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최대현장로님, 이재근장로님, 박훈장로님)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표기도가 올려지게 하옵소서.
- 회중의 마음을 담아 겸손히 주께 간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담임 한기홍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경을 교독할 때, 말씀의 진리가 마음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 1) 한기홍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선명한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통회 자복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 2)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긴장을 풀지 않는 승리의 삶(ㄴ4:7-23)'의 말씀을 통해, 나태해지고 타성의 젖은 삶을 회개하고 예배 중심의 삶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 3) 팬데믹으로 침체 되었던 공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과 시간들을 거룩한 습관들로 채우게 하옵소서
- 4) 목사님의 간절한 도고와 간구에 힘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매순간 위로하시고 세밀한 음성과 감동으로 항상 동행해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과 자녀손들을 붙들어 주셔서 평안 가운데 사역에 전념하시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 5)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반아 복음전파와 세계 선교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은혜 제단과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 일천번제 새벽기도 (4/10/2021 까지)
- 전교인 성경 다독 읽기 (7/27-11/30) & 성도 양육 과정
- Grace Encounter (10/18-12/6)

새롭게 안수 받으신 6 분의 목사님을 축복합니다(조남국, 정태호, 이창석, 준리, 제임스장, 사무엘한)

B.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1) **ONLINE & OFFLINE 예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예배, 헌신된 예배, 결단하는 예배, 삶을 통해 열매 맺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2) 나태해진 믿음의 고삐를 조이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심전력하게 하옵소서!
- 3) 설교시간에 어두운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공간의 분위기가 안정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 4)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C.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1)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변화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3)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교통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4) 갈급한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하늘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5) 기도의 불이 임하고 믿음으로 무장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6) 위로, 치유, 소망, 용기, 자유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미디어 팀을 축복하시고 음향과 영상 관리자들이 섬세한 섬김을 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계의 성능이 제대로 작동 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창조적인 사역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뒤에서 이름 없이 예배를 섬기고 돕는 모든 수고를 축복합니다!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대상16:29]

- 1) 만물의 주인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 드리는 헌물이 되게 하옵소서.
- 2)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마무리를 위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 3) 기업마다 복을 받고 청지기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 4)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 5)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주의 나라와 몸된 제단이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 †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모든 삶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7. 예배 이후를 위한 기도 [다음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위한 기도]



1. 합심기도를 통해, 공예배와 모든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2.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신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3. 주일과 금요 성령집회 말씀, 일천번제 새벽기도, 큐티, 말씀통독, 성도 양육 과정을 통해, 매일 매일 능력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 EM /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 1)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느슨해진 믿음을 성령의 불로 부흥케 하옵소서!
- 2) **AWANA 프로그램(1학년~5학년)**과 **중고등부 ZOOM** 모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한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 3)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역사와 사회와 교회와 문화 속에 파워있는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4)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 게임중독, 정신적인 연약함과 아픔, 자살 음란에서 떠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 5) **공교육을 성경적 기초 위에 다시 세워 주옵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 6)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온라인 학업을 통해서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실력과 능력을 갖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 교회 환우들과 Jesus Light을 위한 기도

- 1) **환우와 그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 중에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 2) 긴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삶을 위로하시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 3)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 4) **코로나 사태로** 병원 치료가 늦어지지 않게 하시고 적절한 돌보심과 보호가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 5) **Jesus Light**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나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사랑받으며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 1)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성령충만하게 하옵시며, 끝까지 세계 선교를 강건하게 감당하시도록 지켜 주옵소서. **[서울 은혜교회의 하남시 성전이전과 정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2)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 3)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환경적인 필요, 재정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맡은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GMI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1)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질병과 각종 위험에서 보호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 2)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혔던 선교와 현지 사업들이 새롭게 열려지게 하시고 예정된 자들이 모두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 3) 비대면 사업을 통해 신학교들이 다시 운영되게 하옵시고, 계속해서 주의 종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 4)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하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GMI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금주의 기도

사역	건축중이신 선교사님	항암중이신 선교사님	병환중이신 선교사님
• 김태환 선교사님(인도네시아) 가정 방문 전도와 구제 사역에 보호와 인도하심/ 복음 전파를 위해 • 고선교사님(I 국)- 무슬림 전도를 위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 장 선교사님(B 국)- 봉쇄는 해제 되었으나 나라 안에 경제적 위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서울 은혜교회가 경기도 하남시로 성전을 이전하였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을 행통하게 하시도록	• 김경순 선교사님 (노보시비르스크)- 성전건축 • 김정훈 선교사님 (B 국) -성전 건축 • 이광섭 선교사님 (필리핀 기쁨의 교회 건축 마무리) • 김득원 건축선교사님 (태국 선교센터 건축) • 최윤섭 선교사님 교회 재건축을 위해	• 김명자 선교사님(스웨덴) - 암에서 완전히 치유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 이에신 선교사님 (A 국)- 입원치료중이십니다. • 유인숙 선교사님 (C 국) 선혼 3 기 • 엘레나 찬양사역자 (블라디보스톡 교회) • 이해영 선교사님(T 국)- 암이 왼쪽 엉치뼈로 전이 됨: 깨끗이 치유되도록/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도록	• 이은원 선교사님 딸, 은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 정광수 선교사님- 식도암 제거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 강영순 선교사님- 류마틱 자가 면역 결핍증 통증(한국행-치료 예정) • 박경덕 선교사님 턱과 가슴, 갑상선에 있는 혹이 제거되도록 • 조경호 선교사님, 머리 종양 제거 수술 예정/ 깨끗이 치유되도록 • 양창모 선교사님(T 국)의 파킨슨병을 치유해 주시도록 • 최광 선교사님, 간이식 수술의 회복을 위해



미국을 위한 기도 3.3.3 기도 운동

하루 3 번 / 3 가지 기도제목 / 3 분 기도

COVID-19, 시위와 폭동, 서부 해안지역의 대형화재, 연속되는 허리케인, 국론의 양극화...

미국은 지금 남북전쟁 이후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는 11 월의 선거는 미국의 방향과 체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비상시기입니다.

11 월 3 일 대통령과 국가지도자들의 선거를 앞두고 9 월 25 일-11 월 3 일, 40 일간
하루에 3 회, 3 가지 기도제목을 가지고, 3 분씩 비상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3.3 기도제목]

1. COVID-19 이 속히 없어지도록

하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며 팬데믹을 종식 시키실 유일한 분입니다.

- 온 세계가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 교회 예배와 학교 수업과 경제활동이 정상화 되도록,
- 의료진 보호, 확진자와 그 가족의 구원, 효과적 백신 개발을 위해
- 대통령과 행정 책임자들의 지혜로운 결정을 위해
-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코로나에서 속히 완쾌 되도록**

2. 11 월의 선거를 위해서

미국이 성경 위에 든든히 세워져 세계 교회들 보호하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 미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이 임명되도록
-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판결들(낙태, 동성 결혼, 공립학교 성경교육 관련 등)이 고쳐지도록

3.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강력한 부흥 만이 이 악한 시대를 위한 해결책입니다.

- 팬데믹 이후에 미국과 세계 곳곳에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 임하도록
-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곳곳에서 영적 대 추수가 일어나도록
- 박해받고 있는 나라의 교회들이 성령으로 타오르도록

COVID-19

전세계 : 4 천 2 백만 사망: 115 만명/

미국 확진자 : 875 만/ 사망자 : 22 만 9 천

CA 확진자: 90 만 / OC 확진자: 59,800/ OC 사망자: 1,440



온라인 사역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양육과정들을 온라인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인카운터도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교회 현장에 나와서 은혜 받던 때가 그리웁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시대에 새롭게 열린 온라인으로 하는 모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임을 할 수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의 도움을 참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7개월이 넘는 시간 현장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모든 집회들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진행을 위해 미디어 음향 팀들의 수고가 참으로 많습니다. 일천번제 새벽기도와 모든 성도양육과정과 선교사역까지 영상으로 제작하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또 다시 바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교회 체질은 은혜 받는 체질, 나누어 주는 체질, 섬겨주는 체질, 희생하는 체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 현장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하며 은혜 나눌 수 있으니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전 10:13)

감사한 것은 이번 주 토요일에 목사안수식이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교회에서 6명의 전도사님들(조남국, 정태호, 이창석, 준리, 제임스장, 사무엘한)이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목사님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큰 부흥을 위해 쓰임 받는 목사님들이 되도록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가정은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장남 사무엘 선교사가 목사안수를 받게 되었으니까요. 은혜교회에서 태어나서 은혜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장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전도사, 선교사로 목사로 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덕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든 사역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으로 주님을 섬기며 늘 건강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셔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목사 드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Neh 8:10



문제를 주님 앞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0 월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때쯤이면 우리는 새해의 스케줄을 계획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2020 년 가을 우리는 내년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긴 시간을 이겨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켰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문제 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문제 속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음 세가지 유형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첫째는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일입니다.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문제해결을 뒤로 미룬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거나 혹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있음을 느끼거나 혹은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도 수술이나 어려운 치료 과정을 뒤로 미루다가 도리어 손쓸 수 없는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두 사람 사이에 짜늘한 기운을 느끼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뒤로 미루다가 드디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책임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있는 것은 자기자신인데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의 탓으로 일어났다고 책임을 전가하므로 그 문제를 회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짜늘하게 냉각되는 것을 느끼면서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부부지간의 관계에 전혀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책임이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무엇인가를 해야지. 내가 왜 먼저 말을 해야 해?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며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을 때 결국 고통은 누가 당하며 누구의 문제가 점점 커집니까? 이러한 문제는 교회생활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하여 발을 떼지 않고 가만히 앉아 염려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염려를 'worry'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Anglo-Saxon 말로 '목을 조르다' 혹은 '숨이 막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와 걱정이야말로 우리들의 목을 조르며 숨통을 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의욕도 사라지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들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뻔히 보이는 해결책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뒤로 미루며 책임전가를 할 때 그들 곁에 누가 서 계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서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그 문제를 직접 주님께 가지고 나오기 전에는 주님도 역사를 못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문제 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들고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종
김광신 목사드림



네가 할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금하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55: 2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3.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4.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5. 여호와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사 66:1-5]

정직한 마음의 첫번째 표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입니다.

이사야 66 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와 그렇지 않은 예배자의 문제를 다룹니다. 3 절은 악인의 제사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살인처럼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4 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2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의 첫 번째 표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너무 못마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무 취약하며, 무력하다고 느끼며, 자신의 허물을 통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51:17 에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첫번째 조건은 기도하는 자의 상한 마음과 겸손입니다.

-John Piper-

